

서민 대출금리 인하 방안 마련

광주은행, 경영전략회의
영업력 강화 등 전략 발표
사회공헌·ESG경영 확대

광주은행은 지난 18일 서민·소상공인 구체적 금리인하 방안 등이 담긴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은행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주력할 중점 추진전략으로 ▲금리 상승기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업력 강화 ▲채널 최적화 전략과 비용 관리 기반의 경영 효율성 제고 ▲디지털 경쟁력 강화 통한 미래 수익기반 확대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송중욱 은행장은 직원들에게 지

역과 상생, 지역민과의 동행을 통한 '이의 이상의 가치 추구' 경영이념을 명심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전략 간 마련을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으로 ▲지역 중소기업·중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및 포용금융 실천 ▲사회공헌 활동 강화 ▲ESG경영 확대 ▲지역밀착 사업 강화에 더 힘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와 빅스텝에 따른 저신용자 금융 취약층의 빛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중서민 및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금리인하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광주은행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대출 금리 2.0%p 인하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담보대출 기한 연장시 최대 1.0%p 인하 ▲개인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금리 7.0% 초과대출 최대 1.0%p 인하 등을 시행한다. 아울러 지역의 중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추가 방안도 강구해 시행할 계획이다.

송 은행장은 "사상 첫 빅스텝과 금융의 디지털화, 침체된 경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직면해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며 "디지털 사업의 성숙도를 높이고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100년 은행으로의 성장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과감히 실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지역경제와 상생하기 위한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 실천에 광주·전남



광주은행은 지난 18일 본사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상반기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점과 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광주은행 제공

대표은행의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는 상반기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점과 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해 사기를 높였다. PB·활동고객·전략대출·적립금 예금 등 각 부분별 우수사례 발표와 더불어 달빛동맹 교류 은행인 대구은행 신성우

부천지점장을 초청해 영업 우수사례를 듣는 등 타 은행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직원간 의견을 공유하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오지현 기자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 간편해진 335건강보험 출시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총국장 이재철)은 최근 '무배당 간편해진 335건강보험'을 출시하고 김영중 장흥 안양농협 조합장이 전남1호로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무배당 간편해진 335건강보험은 기본 유병자 보험보다 할증률을 낮추고 부정맥과 협심증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 심장질환의 보장을 강화했다.

다빈치 로봇수술, 하이퍼치료 등 신

의료기술 보장담보도 탑재했다. 기존 간편심사형 보험의 고지사항을 변경해 경증 유병자도 비교적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일반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질병후유장애 80% 이상 진단 때 보험료 납입면제가 된다.

무배당 간편해진 335건강보험은 ▲3개월 이내 의사의 입원·수술·검사 등

소견여부 ▲3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여부 ▲5년 이내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간경화의 진단·입원·수술 여부만 고지하면 가입할 수 있다.

무해지환급형과 갱신형, 일반심사와 간편 심사에 따라 상황에 맞게 상품 구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연령은 20세부터 최대 90세까지이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된다.

무배당 간편해진 335건강보험은 전남 내 농·축협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상담 및 가입할 수 있다. /우성진 기자

광주창경센터, 로컬크리에이터 '창업포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27일 모종린 교수 강연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는 27일 광주시민회관에서 지역 스타트업 및 창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유관기관 실무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7월 광주창업포럼'을 개최한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지역 로컬 비즈니스 생태계의 현황 및 저변확대를 주제로 ▲투자유치 IR ▲전문가 특강(소상공인의 미

래) ▲네트워킹·소셜 다이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l)'과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을 뜻하는 '크리에이터(Creator)'의 합성어로 지역 문화, 관광 및 자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의미한다.

이번 강연을 맡은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모종린 교수는 국내 유일의 골목길 경제학자, 로컬크리에이터의 멘토 등 현장 전문가로 알려졌다.

정치사회 전반에 풍부한 식견과 연구

경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모 교수는 '머물고 싶은 동네가 떠났다', '골목길 자본론' 등 다수의 책을 출간해 골목상권과 경제 현상을 분석한 독특한 연구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상용 센터장은 "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짐에 따라 창업 생태계 기반 형성을 바탕으로 지역 창업자들에게 활력이 되는 사업을 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창업기업의 니즈에 맞는 주제를 통해 창업포럼을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광주창업포럼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www.goldclass.co.kr

단, 현재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

골드클래스(주) · 골드디움(주) · 골드종합건설(주) · 보광건설(주) · 보광종합건설(주)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 (화정동) 골드클래스 ■ 문의 : 062) 233-3999

현대차, '2023 쏘나타 센슈어스' 출시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 등
지능형 안전기술 탑재

현대자동차는 쏘나타의 연식변경 모델 '2023 쏘나타 센슈어스'를 출시했다.

'2023 쏘나타 센슈어스'는 전 트림에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을 신규 적용하고, 고객 선호 트림에 지능형 안전 기술을 기본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랜저 등 상위 차급에 적용되던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은 ▲전방 차랑과의 충돌 ▲차량의 차선 이탈 ▲후측방 충돌 위험 ▲운전자 주의 경고 시 스티어링 휠 진동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지능형 안전 기술이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프리미엄 플러스' 트림에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지능형 안전 기술을 기본화해 안전성 및 편의성 개선에도 주력했다.

이와 더불어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는 고객 선호 편의사양인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를 기본화해 상품 경쟁력 강화에도 나섰다. 최상위 인스퍼레이션 트림 기반의 N 라인 디자인 에디션 트림에 쏘나타 N 라인 전용 ▲블랙 하이그로시 라디에이터 그릴 ▲리어 스포일러 ▲19인치 알로이 휠 & 패들러 타이어 등을 적용해 고성능 이미지를 더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3 쏘나타 센슈어스는 고객 선호사양을 기본화하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화해 이전 대비 한층 더 고급스러워졌다"며 "중형 세단 고객에게 진일보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력거래소 "이번 주 전력수급 안정"

남부 중심 장마전선 영향

전력거래소는 이번 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 전력 수급 또한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19일 밝혔다.

7월 셋째 주 전력거래소의 전력수급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전력거래소의 전력 공급능력은 9만 7,480-9만 9,311MW로, 전력수요는 이보다 낮은 8만 7,500-8만 8,850MW, 예비전력은 9,511-1만 1,497MW로 예상된다.

지난주 예비율 전망치는 8.1-9.8%를 기록한 데 비해 이번 주 예비율 전망치는 10.7-13.18%로 오르면서 10%의 예비율을 달성하는 등 다시 안정적인 전력 수급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지난 주 전력수급과 관련,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아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력수요도 다소 감소, 예비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주 전력수요는 11일 8만 6,943MW, 12일 8만 7,250MW, 13일 8만 5,034MW, 14일 8만 5,530MW, 15일 8만 3,272MW로 8만MW대를 유지했다. 예비전력도 최저 13.5%, 최고 20.9%로 10% 우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오지현 기자